

6/10/18

설교 제목: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4 장 1-19

- (호 4: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 (호 4: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 (호 4: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절관주** 사 24:4, 렘 4:25
- (호 4:4)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절관주** 겔 3:26, 마 15:14, 신 17:12
- (호 4:5)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절관주** 사 9:15, 사 9:16
-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 (호 4:7)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 (호 4:8)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 (호 4:9)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 (호 4:10)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호 4:11)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 (호 4:12)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 (호 4:13)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절관주** 롬 1:28

- (호 4:14)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 (호 4:15)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 (호 4:16)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 (호 4:17)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절판주 호 4:4, 마 15:14
- (호 4:18)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 (호 4:19)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싣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 3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 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을 하나씩 열거하시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 (호 4: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 (호 4: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를 따져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덕목인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서는 안되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강포, 피흘림 등이 만연히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8 세기는 여로보암 2 세가 통치했던 시기로 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 이래로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라도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약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강자들만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 4: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젓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폐허가 될 것이고 따라서 사람과 짐승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지라도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호 4:4)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고 모두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까지 제사장의 타락함을 보고 제사장을 거역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사장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긴 하지만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야 할 제사장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과 행악을 일삼으니 백성만 나무랄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호 4:5)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제사장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타락하였다고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네 어머니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 제사장 선지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제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1. 제사장이 지식을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시며 그 책임을 제사장에서 찾으십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곧 지식을 가리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 자신이 율법을 버렸으니 당연히 백성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 그들에게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그들을 버리시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출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빼앗겠다고 하시는 것은 단지 제사장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기는 커녕 더 많은 죄를 범한다고 한탄하시며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도 제사장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호 4:7)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은 인구의 숫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것까지를 포함함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번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번성이 자기들이 섬기고 따르는 우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제사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죄를 심판하되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과 명예를 빼앗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3.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마음으로 반겼다는 것입니다.

(호 4:8)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호 4:9)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sup>8</sup> They feed on the sins of my people and relish their wickedness.

(한국말 성경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은 NIV 로 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한 것도 모자라 은근히 반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무슨 이야기이냐고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속으로 기뻐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 중 제사장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속죄제를 지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사장 앞으로 돌아오는 몫도 덩달아 많아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자기 수입 때문에 백성들이 죄짓는 것을 방관하고 속으로는 반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같은 것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각자 자기가 한 행위대로 벌하고 되갚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 먼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번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호 4:10)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호 4:11)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은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즉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세상 것들을 추구하여도 결코 충족하지 못하게 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 하나님은 세상 즐거움인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아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 4:12)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호 4:13)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호 4:14)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그들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들의 멸망을 시사합니다.

(호 4:15)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북 이스라엘을 내 놓은 자식으로 취급하고 북 이스라엘에 비해 비교적 죄의 수위가 낮은 남 유다만 자식 취급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길갈과 벳아웬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호 4:16)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호 4:17)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호 4:18)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호 4:19)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싣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의 지파 중 가장 막강한 지파로 북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북 이스라엘을 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최악된 행동을 막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포기한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싣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BC722 년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이스라엘의 결국은 부끄러운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좇아 섬긴 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그들의 최후를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서슴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매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좇아 섬기고 산 자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